

적들이 숨어버린 시대의 절망과 그리움

두 작가의 최근 소설을 읽고

최성실

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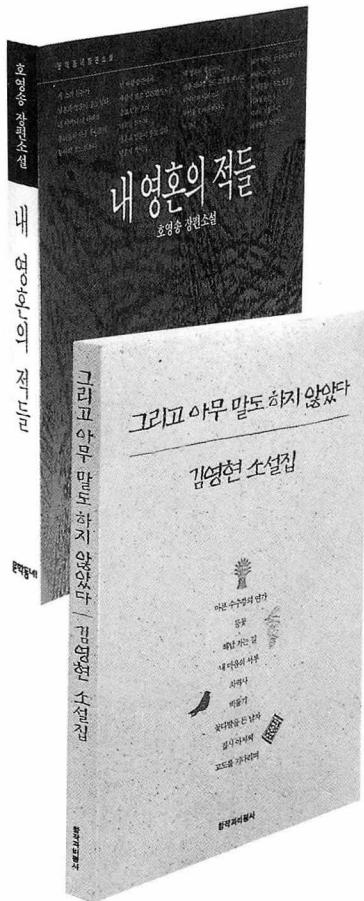
눈에 보이는 싸워야 할 적들이 숨어버린 시대에 작가들은 꿈을 꾸지 않는다. 이제 역전하고 역전하는 인간존재, 그 존재의 망설임의 나선을 따라내려와 작가들은 끊임없이 그 존재가 흔들리고 머뭇거리고 얼쩡거리는 풍경을 따라 그리며 고뇌한다. 그 고뇌의 밑바닥에는 '쫓는 절망'과 '쫓기는 그리움'이 얽혀 있다.

김영현은 그리움의 대상이 사라진 자리에 또다른 그리움을 심어가는 과정을 사라져가는 것들의 밑동을 통해서 드러낸다. 세상에서 절망한 존재들이 세상에서 이룰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영원한 슬픔과 그 뒤에서 흔들리는 '보랏빛 동꽃'을 찾아가는 그 지난한 길을 다양한 앵글로 포착하여 보여준다. 작가는 그런 존재들 속에 묻혀버린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세우고 "도무지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향한 그리움을 심으려고 바스락거린다. 이 앵글에 포착된 인물들은 하나같이 모두 세상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자기 운명에 대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그리움이 없는 시대'의 인물들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의 재섭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는 "아아, 나는 무엇에다 나의 존재를 걸어왔는가. 아니 그런 게 있더라도 했던가"라고 자책할 수밖에 없는 '그리움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는 현상적인 삶의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을 본질적인 삶과 마주해보고자 수도원의 벽화 그리기에 참여한다. 그는 그곳에서 종교적 초월세계와 현실세계의 조화를 고민한다. 그리고 묻는다. 이 시대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그 또한 수난과 승리, 죽음과 부활, 인성과 신성을 지닌 모순 덩어리는 아닌가. 우리가 믿었던 절대적인 존재 '혁명'이 사라진 이 시대의 모순만큼 예수도 그 자체가 모순 덩어리 아닌가? 라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신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작가는 이렇게 속삭인다. "당신 속에 신은 없어. 인간들의 절망과 고통만이 가득하지. 난 알아, 저건 바로 당신의 자화상일 뿐이야." 이제 당신이 온 존재를 다 걸었던 절대적 가치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나라고. 그런 속삭임을 듣는 순간 마음 속에서는 "신은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돼"라는 울림이 들려온다. 그 울림의 끄트



머리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세상에 절망해서 꺼억꺼억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동꽃>에서는 "지금은 누구도 기억하기 싫을, 마치 뻑뻑한 기름통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았던" 80년대 초의 그 절망적이고 삭막했던 시절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버티내려 했던 인물들의 쓸쓸한 뒷모습이 배어져 나온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이라 해도 세월이 지나면 어쩔 수 없는 것인가? 그들이 운동권 커플의 사랑을 키워내려고 했던 것은 "어쩌면 인간의 모든 진실된 힘과 마음을 비우고 있을 지도 모르는 독재권력에 대한 또 하나의 저항인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맺어진 커플의 이혼을 바라보면서 혁명에 걸었던 기대의 배신감과 생의 쓸쓸함을 느낀다. 그렇게 그리움은 사라져갔다.

<해남 가는 길>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그리움이 사라진 시대의 초상이다. 해남으로 가는 길에는 고인이 된 고정희에 대한 그리움과 "6공화국, 수서비리, 재벌기업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낙동강 폐놀오염사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추악한 권력 암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이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저마다 가슴속에 품었던 '그리움'이 사라진 뒤 존재 자체에 대해 갖는 의문은 존재를 분산시키기도 방향하게도 한다. 그 여정의 괴로움으로 김영현은 어떤 신비로운 존재자에 숨고자 하기도 하고, 호영송은 비생산적인 연애행각으로 시간을 낭비하기도 한다. 그들 모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빈부의 격차"에 대항하지 못하고 쓰러져버린 그 어떤 것에 대한 그리움이 깔려 있다. 그 그리움을 밟고 해남 가는 길은 결코 편치 못하다.

이제 작가는 그 편하지 못한 길을 돌아서 가보고자 한다. '서부'를 돌아서, 그리고 비범하고 신비한 힘을 가진 인간들(<차력사>, <집시 아저씨>)을 거쳐서 천천히 걸어간다. 그러나 그 길 위에도 여전히 편치 못한 것들, 예컨대 국회 의사당에서 집시아저씨가 마술로 꺼낸 흰 장화, 코카콜라 빈병, 부서진 우산대, 먹다 버린 음식, 각종 쓰레기 오물이 지천으로 깔려 있다. 그러니까 운명과 대결하는 차력사의 그 엄청난 힘도, 집시 아저씨의 마술도 작가의 꿈을 실현시켜주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그들도 역시 역사의 한 귀퉁이에서 살아가는 하지만 그 역사가 그들의 전부일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이다. 하여 작가는 칼 포퍼에 대해서 비판하면서도(<비둘기>) 끊임없이 역사는 진보할 거라고 믿고 싶은 마음과 "구름에 가려져도 해는 여전히 자기의 행보를 걸어가고 있다"는 믿음으로 서사를 진행시킨다.

영혼 속에 빨려들어난 '적'

작가 호영송은 이 '구름'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런데 <내 영혼의 적들>에 낀 구름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다. 그 구름은 말 그대로 영혼 속으로 빨려들어가 있어 그 형체가 불분명한, 그러나 지독하게 불순한 보이지 않는 '적'이다. 그 적은 대포집에서 한 얘기와 택시 안에서 한 얘기를 그 누군가가

엿듣고 고발하여 쇠창살에 갇히는 세상에서 미세한 분말로 갈려서 자자 인간의 영혼 속에 흩뿌려져 있다.

이 소설의 주요 인물들은 서로서로 바이러스를 옮겨가며 기생한다. 오지원은 "작은 불펜, 만년필 한자루뿐인" 인간으로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서서히 과거를 잊고 세상에 길들여진다. 그리고 급기야는 "민중시인이 꼭 민중을 위해서만 정열을 불태운다는 것...웃기는 발상이란 말이예요."라고 민중시인 도명수에게 얘기한다. 또한 최성빈이란 인물은 자기 아내와 오지원의 연애행각을 소설로 쓴 <그들의 성>을 출판한다. 도덕과 윤리를 팔아서 돈을 챙긴다. 이렇게 이들은 적과 동침하고 적과 함께 숨쉬며 살아간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적은 내 영혼을 갇아먹고 심장을 파먹는다. 이제 작가는 이런 지식인의 위험수위를 고발하면서 타자가 아닌 '나'의 영혼을 점검해보라고 권고한다. 열려진 사회의 적들은 내 영혼 안에서도 기생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의 그리움의 대상은 도명수였노라고.

저마다 가슴 속에 품었던 '그리움'의 그 어떤 것이 사라진 뒤에 품게 되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은, 존재를 차례차례 파열하여 분산하기도 하고 그 중심에서 방향하게도 한다. 그 여정의 괴로움으로 하여 김영현은 <차력사>나 <집시 아저씨> 등과 같은 어떤 신비로운 존재자의 옷깃 속으로 숨어버리고자 하기도 하고, 호영송은 비생산적인 연애행각으로 시간을 낭비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 모두 "도무지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끝없는 그 길 위에서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 위에.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김영현 지음

창작과비평사 / A5신 / 350면 / 6000원

《내 영혼의 적들》 호영송 지음

문학동네 / A5신 / 376면 / 6500원